

교회소식

01. 추수감사절

10월 마지막 주일(10.29)은 '감동'(시 50:23)의 주제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① 추수감사주일 당일은 전교인 국밥 나눔 한마당이 있습니다.

② 헌물 봉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국밥 나눔 행사용 헌물(소, 무, 양념류 등)

· 특별 헌물(과일, 채소, 대형 호박 등)

·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704-090027 (예금주: 대한예장명성교회)

하나은행: 561-910010-79504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명성교회)

02. 예배

주일찬양예배 말씀은 레너드 스위트 목사(Rev. Dr. Leonard Sweet, 前 드류대학교 전도학 석좌교수)께서, 통역은 김영래 목사(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께서 전해주시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명성도서관 방문의 달

개관 27주년을 맞이하여 명성도서관 방문의 달 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간: 10.29(주일)까지 · 회원가입자 및 도서대출자 기념품 증정

· 세부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①	아빠가 읽어주는 영어그림책	10.15(오늘) 2부 예배 후	영유아자료실
②	신기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그림책 전시	10.22(주일)까지	본관 로비
③	과년도잡지 및 기증도서 나눔	10.24(화) - 29(주일)	본관 로비
④	그림책 원화/ 명화 전시	후반기 상시 전시	

· 문의: 명성도서관 ☎ 02-440-9140, 도서관 홈페이지(www.mslib.or.kr) 참고

04.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금주 신생아

8명

명성교회 출생 신생아(2023년 1월 - 현재)

총 144명

지난주말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6-11절 | 김하나 담임목사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 중 한 부분입니다. 이 안식의 노래는 우리의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오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듣지 않는 귀를 하나님 앞에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방향으로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하며 동시에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무시하고 괘시했을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들의 이야기,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방향으로 귀가 열려 있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과 상응 구조의 말씀인 히브리서 3장 7-8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완악함은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굳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프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된 노예 생활로 인해 패배 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식의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갖고 있었고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타락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작은 물뿔 하나를 집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목사

김남수 김동민 김동욱 김동진 김득열 김봉기
 김석호 김선우 김예셀 김요한 김은호 김은영
 김은자 김준환 김춘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우진 박현규 방유경 백재용
 서찬성 손일재 손지목 송한솔 신동신 신재희
 신충현 우중현 유태규 윤석진 이경민 이경환
 이대선 이덕기 이서구 이은세 이재민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목 임지환 장중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재영 천해림 최대열 최예녹
 한바울 한정민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배진태
안주훈 최운배

교육목사

권오병 김은혜
박고운 이승갑

전도사

권예찬 권혁현 김민음 김석현 김승택 박경애
박근우 박보하 박재현 이상인 이 성 이울관
이준민 이준식 임기도 정구현

교육전도사

강찬용 김용문 김웅기 김윤영 김준영 김하성
문태은 박경민 박조룡 손찬영 송영호 이민기
이성준 이성현 자 팻 장건희 차주현 최하경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오직주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8절

